

# 새소식을 전하며

〈열린 지성〉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 작은 소리에도 열려 있는 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감하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지성〉은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내일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열정어린 지성들이 모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기름진 영토입니다.

〈열린 지성〉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별이 없고 우리와 너희를 가르치는 일도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열망하는 사람, 옳은 것을 위해 언제라도 함께 그리고 또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열린 지성〉의 주인입니다.

2002년 6월 기초교육원이 문을 연 지 3년 만에 소식지 〈열린 지성〉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지성〉은 학부 교양 교육의 중심 기관인 기초교육원의 소식지인 만큼 교양 교육에 대한 학부 학생들의 생각과 비전을 담아내고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을 자처하며 학생 기자들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열린 지성〉이 첫발을 내딛는 데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창간사를 써 주신 임현진 기초교육원장님, 〈열린 지성, 초대석〉에 첫 번째 손님으로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태수 대학원장님, 원고 청탁부터 선선히 허락하시고 약속한 시간에 꼭 맞춰서 원고를 보내주신 유형규 교수님, 국제학회에서 가져온 따끈따근한 새소식을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전해 주신 김지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린 지성〉에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학생 여러분이었습니다. 기획기사를 위해 올린 설문에 성실히 답해 준 익명의 협조자들과 기초교육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해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학생 제언의 필자들, 1학년 학생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조금은 서툰 어투로 열심히 써 보내준 학생 논단의 필자, 그리고 나머지 기사 작성과 섭외, 편집에 함께한 학생 기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호부터 이 면은 ‘독자 편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열린 지성〉 창간호를 읽고 ‘독자 편지’에 답글을 보내 주실 여러분의 모습과 목소리를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편집부